돌에 새겨진 역사를 만나다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중국 화상석 탁본展
3월 22일~6월 28일
효당산 석사 탁본 눈길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중국 효당산 석사 대들보 동쪽 화상.

2000년 전 중국 한나라 시대 사당과 묘의 돌판에 새겨진 벽화 화상석 탁본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된다. 화상석은 사후 세계관과 역사, 일상생활을 풍부하게 담고 있어 당시 시대상을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자료로 평가된다.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3월 22일 한·중 수교 34주년 기념 춘계 특별전 '돌에 새겨진 역사와 신화 이야기-중국 화상석 탁본'을 개막했다. 이번 특별전은 고판화박물관에서 열리는 3번째 탁본 전시로 국가유산청과 강원도, 원주시 후원으로 진행되는 '2026년 생생국가유산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화상석은 무덤과 사당 등에 사용된 사각 돌판에 역사와 신화 등 다양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새긴 것을 말한다. 이후 금석학 연구가 발전하면서 탁본으로 인출된 작품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2017년과 2022년 열린 '세계 불교 탁본전1·2' 이후 새롭게 수집된 중국 화상석 관련 탁본 50여 점이 출품됐다.

3월 16일 서울 종로에서 특별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한선학 관장은 "중국 화상석은 돌에 새겨진 역사와 신화의 그림책이자 중국 고대 미술의 금자탑"이라며 "중국 미술사의 계승과 발전의 시발점으로 불교 석굴 사원 선각화에도 영향을 미쳤고, 중국 전통 목각판화의 시작이자 고구려 고분벽화와의 연관 자료로도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시는 중국 고대 신화와 역사, 생활상 등을 통해 동양 문화의 흐름과 한국 문화와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서왕모와 동왕공, 뇌공, 풍백 등 신화 속 인물을 비롯해 효자·열녀 이야기, 고대 축구와 양꼬치 요리의 기원을 보여 주는 장면 등 다양한 이야기가 담겼다.

특히 눈여겨볼 작품은 전시 1부에서 최초 공개되는 효당산 석사 화상석 대형 탁본 5점이다. 효당산 석사는 현존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중국 지상 석조 건축물로, 내부 벽면과 대들보에 새겨진 화상석으로 유명하다.

대표 작품으로는 길이 7m가 넘는 행렬 장면을 담은 '대왕차 행렬도(大王車出行圖)'와 공자가 노자를 찾아 예를 묻는 '공자문례도(孔子問禮圖)', 한나라와 북방 유목민 간 전투를 묘사한 '호한전쟁도(胡漢戰爭圖)' 등이 있다. 수렵과 잔치 등 당시 생활상을 보여 주는 장면들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시에서는 다양한 화상석 탁본과 함께 화상석 선각화 기법의 영향을 받은 불교 사원 선각화를 선보인다. 용문석굴 광배 탁본과 대주석굴 불교전법도, 소림사 선각 권법도 등이 전시된다. 전시는 6월 28일까지 이어지며, 1박 2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화상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한 관장은 "화상석은 목판화와 마찬가지로 독특한 디자인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화상석 탁본이 동양 문화의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33-761-7885

운문사가 품은 성보유산들

청도 운문사 '법고창신' 특별전
'아미타설법도' '극락구품도' 등
3월 11일 개막, 12월 31일까지


운문사 만세루 단청을 설명하는 역사문화관 부관장 동우 스님.

청도 운문사(주지 은광 스님)가 사찰의 천년 역사와 전통을 담은 성보를 선보이는 특별전을 열었다.

운문사는 3월 11일 경내 역사문화관에서 '법고창신(法古創新, 나날이 새로운 옛 것)'을 주제로 특별전 개막식을 개최했다.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전시에서는 운문사가 보관해 온 유물과 모사·복원 작품들이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19세기 불화인 '운문사 염불당 아미타설법도'(1861)와 '운문사 아미타극락구품도'(1883)를 비롯해 목조 불패와 불연, 만세루 단청 등이 전시됐다. 또 비로전 후불벽 뒷면에 그려진 관음보살·달마대사 벽화 모사도, 비로전 반야용선대(용가) 복원 작품 등도 선보인다.

1861년에 제작된 '아미타설법도'는 연화대좌 위에 결가부좌한 아미타불을 중심으로 협시보살인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 그리고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등장하는 구성을 갖춘 작품이다.

또 다른 대표작인 '아미타극락구품도'는 1883년 금운 긍률을 수화승으로 대흥·천규·경운 등이 참여해 조성한 불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운문사 대웅보전 후불벽 뒤편에 그려진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를 모사한 벽화도 공개됐다. 험준한 바위산을 배경으로 관음보살과 달마대사를 한 화면에 배치한 작품으로, 두 도상이 나란히 표현된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운문사 역사문화관 부관장 동우 스님은 "이번 전시는 운문사가 걸어온 천년 역사를 실제 유물과 모사·복원 작품을 함께 소개하는 자리"라며 "근대 비구니 도량으로 자리 잡은 운문사가 천년의 역사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청도 운문사=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나의 선행은 어떻게 열매 맺을까?

㉞ 삼처회향(三處回向)

三 處 回 向

우주의 맑은 기운이 깨어나고 별빛이 초롱초롱한 새벽, 부처님 전에 예불을 올리며 발원한다.

"앙고 시방삼세 제망중중 무진삼보자존…상래수불공덕 회향삼처실원만." "우러러 고하옵나니 시방 삼세에 두루 계시는 자비로운 삼보님이시여, 저희가 닦은 부처님 법 수행 공덕을 삼처에 회향하오니 원만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회향(回向)은 자신의 선행을 이웃과 세상에 돌리는 일이다. 삼처회향은 그 회향이 세 방향으로 펼쳐짐을 뜻한다. 나의 행위가 이웃에게 향하고(중생회향), 그로 인해 그들이 지혜를 깨닫게 하며(보리회향), 마침내 고요·청정·평온·기쁨의 삶에 이르게 하는 것(실제회향)이다.

나의 지인은 회사 동료들과 자존감이 약한 청년들을 돌보고 있다. 청년들과 정기적으로 식사하고 책을 읽고 토론하며 함께 여행도 한다. 그들은 매년 그동안의 배움을 글로 정리해 대중 앞에서 발표한다. 이 과정을 통해 청년(중생)들은 내적으로 성장하고(보리), 자존감을 회복하며 용기 있고 당당한 삶으로(실제) 나아간다. 이 여정이 곧 삼처회향의 모습이다.

〈화엄경〉 '십회향품'은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먼저 중생회향이다. "보살은 마땅히 선근을 회향하여 내가 쌓은 공덕으로 온 법계의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고 모두가 청정해져서 마침내 해탈에 이르게 하리라."

수행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중생에게 향해야 함을 밝힌다.

보리회향은 "모든 선근으로 오직 위없는 보리(깨달음)를 구하고,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모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설한다. 이는 하나의 선행이 궁극의 진리를 깨닫도록 돕는다는 의미이다.

실제회향은 "모든 법의 본성은 본래 고요하여 나도 없고 내 것도 없으니, 머무름 없는 마음으로 법계와 평등하게 회향한다"라고 한다. 이는 중생이 지혜를 얻어 진리와 하나 된 삶을 살기를 발원하는 경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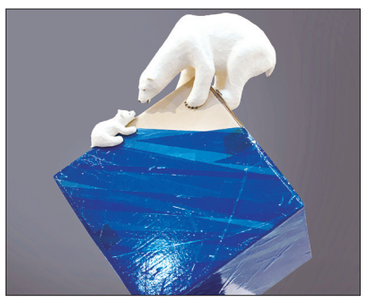
〈관무량수경〉에서는 극락정토의 최상위 국토에 왕생하기 위한 조건으로 지극한 정성, 깊은 믿음, 그리고 공덕을 회향하는 발원을 제시한다.

농부가 수확으로 가족의 삶을 꾸리면 그것은 생업이다. 그러나 자신이 기른 곡식이 이웃을 살리고,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된 인연의 이치를 깨달아 사랑과 도움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농사를 짓는다면, 그것은 회향이 된다. 교사가 규정에 따라 수업하고 보수를 받는다면 그것은 직업이다. 그러나 배움을 온전히 학생들에게 나누어 그들이 지혜와 사랑을 체득하고 서로 돕는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발원하며 가르친다면, 그것이 바로 삼처회향이다.

"내가 심은 한 알의 씨앗이/ 나무가 되고 숲이 되어/ 지친 이들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나의 작은 미소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세상의 평화와 행복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이해인 수녀의 '나를 키우는 사랑' 중 〈화순 불암사 주지〉

업사이클링, 예술이 되다

무우수갤러리 기획초대전
정현철 작가 '쓸모의 증명'
3월 18일부터 30일까지


정현철 작가의 작품 '모두가 아는 위기(35×48×51cm, 택배상자, 한지, 접착제, 2025)'.

'업사이클링(Up-cycling)'은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없어진 것을 수선해 재사용하는 리사이클링(Recycling)의 상위 개념으로, 버려진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전혀 다른 제품으로 생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업사이클링을 예술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인사동 무우수갤러리는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업사이클링 작가 정현철 개인전 '쓸모의 증명'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버려진 택배 상자를 주요 재료로 삼아, 현대 사회가 규정하는 '쓸모'의 기준과 인간 존재의 가치를 질문하는 기획초대전이다.

정 작가는 건국대 산업디자인과를 졸업한 뒤 금강기획과 제일기획 제작본부에서 근무하며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했다. 이후 업사이클링 아티스트로 전향해 조형 작업을 이어 오고 있다.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 기억과 감정,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사유를 주제로 한다. 정 작가는 "관람객이 작품을 통해 사회가 정해 놓은 쓸모의 기준에서 잠시 벗어나, 스스로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